

동성애, 사회적 소수, 삶의 정체성

그리고 홍석천



동성애는 기독교의 성서에서 주장하듯 용서받지 못할 죄악인가? 아니면 종의 번식이라는 자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부도덕한 행위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병리적인 심리상태에서 비롯된 그러므로 치유되어야 할 도착된 질병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이 동성애에 대한 과거의 중요한 담론이었으며, 현재도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이런 편견은 우리 사회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동성애는 이성애에 의해 억압되거나 강하게 배제되고 있다. 이성애와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홍석천(33) 씨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를 만나기 위해 이태원에 있는 그의 가게를 찾았다.

지난해에도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와 반전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홍석천 씨의 사회활동을 화제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용감함보다는 당돌함이었습니다. 해오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대학 선배인 권해효 선배님의 모습이 좋아보였습니다. 커밍아웃 이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서 연락이 올 때 마다 참여했습니다.”

왜 이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동성애자인 소수자 그룹이라서 인권문제나 평화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 보았다.

“커밍아웃 이후 여러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인권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절실하게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에는 등록금 투쟁에는 참여했지만, 정치투쟁을 하면 무섭고 저와 관련이 없는 커다란 주제인 것 같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와 같은 동성애자의 권리문제가 여성의 권리 옹호 및 평화문제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해보자 결심했습니다.”

나를 인정하면서 살고 싶었어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한 2000년 9월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다시 그 기억을 되살리는 질문을 하기가 멧쩍었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다. “원래 제 성격이 솔직합니다. 어려서부터 고민하면서 언젠가 고백하고 싶었는데, 99년까지 3년 동안 진지하게 사귀었던 네덜란드 친구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게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말이 저에게 커다란 용기와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해이자 제가 30살이 되는 해라서 지난 30년과는 달리 앞으로는 나를 인정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개인사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제가 점점 유명해지면서 음지에 묻혀 잘못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는 한국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커밍아웃 이후 그가 겪은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고 한다. “커밍아웃 이후 모든 방송활동을 타의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롭고 서럽고 분하고 화나는 것을 삭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정도로 잘못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못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이유를 들었다면 또는 논의할 시간을 가졌다면 그 정도로 아쉬운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해 모 방송국의 안방극장에 3년 만에 컴백하여 다시 활발한 연예 활동을 시작한 그에게 3년 전과 현재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많이 변했습니다. 어제도 모 라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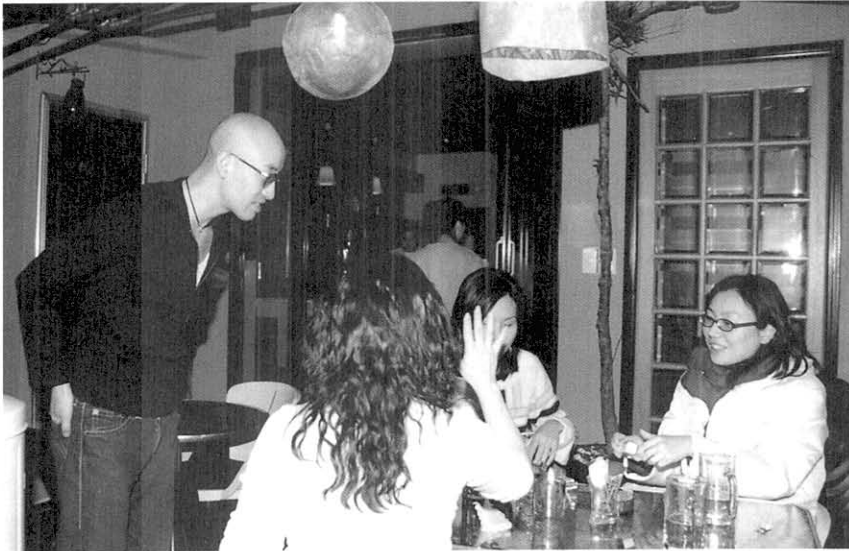


생방송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했는데, 토론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방송국에서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을 주제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30분 동안 동성애 결혼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한 상황은 참으로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의 용기있는 선택과 결단이 변화를 가져와
이런 변화는 홍석천 씨의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꾸어 나가려고 애쓰는 홍석천 씨

에 크게 힘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비록 제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준 게 즐겁습니다.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가 잘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하여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동성애가 단순히 이성애자들의 관용의 대상에 머무르는 문제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동성애를 둘러싼 좀 더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보았다. 우선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인 많은 사람들 역시 동성애 부부가 이성애 부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데에는 회의적이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한 그의 입장이 궁금했다.

“찬성입니다. 요즘은 가족의 개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 가족, 재혼가족, 독신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가족 역시 이런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홍석천 씨는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당위적으로 원칙만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이면서 말을 이었다.

“결혼이란 당사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회에서 동성애 부부의 결혼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적대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에서 동성애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을 듯합니다.”

이런 대답에서 홍석천 씨가 현실의 삶의 복잡성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느낄 수 있었다.

현실의 삶의 복잡성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 지녀

그 다음으로 동성애 부부의 한계 내지 이성애 부부와와의 커다란 차이로 지적되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재생산, 즉 출산의 기능의 결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입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핏줄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우리 사회에는 입양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데,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동성애 커플이 긍정적인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커플 역시 자식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성애 커플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와는 다릅니다. 저는 이성애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동성애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역시 자신의 성적 취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도 받고 손님들과 정겹게 환담을 나누기도 하는 홍석천 씨와의 즐거운 대화는 그의 미래에 대한 문제로 흘러갔다.

“저를 동성애자 홍석천으로만 보는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배우 홍석천으로 인정받고 싶지만, 나 아니면 누가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싶은 책임감으로 인터뷰에 응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극 작품을 구상 중입니다. 동성애 문제를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또 청소년 성교육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자신들이 실제로는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쉽게 동성애로 잘못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청소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희망과 미래 계획을 설명하면서 홍석천 씨는 1년 정도 뉴욕에서 뮤지컬 기획과 사회활동에 관한 공부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의욕과 희망이 넘치는 홍석천 씨의 모습을 보면서 커밍아웃한 유명인 홍석천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꾸어 나가려고 애쓰는 보통의 인간 홍석천을 느낄 수 있었다.

대정신이며, 지난 10여 년 동안 그 보편성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적 질서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성적인 취향을 생물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성애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비도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관계로 여기는 관점을 고수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성애는 이러한 접근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현대에 이르러 성적 취향의 문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이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듯 하다.

그런 점에서 동성애는 사회적·정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다.

다양성과 차이에서 사회가 파편화되는 위험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가 한 사회의 활력과 생명력의 원천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것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결합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성적 취향은 스스로 선택하는 영역

인권과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시

〈황정욱 기자〉